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유산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나의 바바!”라 한다.

**질문:** 인간들이 하는 말은 어느 것 한 마디도 아버지가 하는 말과 비교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나?

**대답:**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고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위대해진다, 즉 가장 고결한 인간들이 된다. 아버지의 고귀한 말씀들은 너희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다. 인간들이 하는 말은 고귀한 말씀들이 아니다. 사실 너희가 계속 낮아져온 것은 그것들 때문이다.

**노래:** 세상은 변할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변함 없을 것입니다.

음 산티. 노래의 첫 줄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쓸모가 없다. 그것은 기타에 쓰여 있는 “신이 말한다”, “만마나바브”, “마디야지바브”라는 용어들이 정확한 것과는 비슷하다. 그것은 밀가루 포대에 들어있는 소금 한 줌이라고 불린다. 신이 누구인지 너희 자녀들은 아주 잘 안다. 시브 바바는 신이라고 불린다. 시브 바바가 와서 시발라야를 창조한다. 그가 어디로 오느냐? 사창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가 직접 와서, “오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다시 찾은 영적인 자녀들아”라고 한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영혼인 너희들이다. 너희가 불멸한다는 것과 너희의 몸은 없어지는 것임을 영혼인 너희들은 안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하시는 고귀한 이 말씀들을 영혼인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다. 오직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만이 고귀한 말씀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고귀한 인간들로 만든다. 위대한 영혼들과 구루들 등은 아무도 고귀한 말씀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시보흠”이라고 말해도 그것 역시 진실된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에게서 고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며 아름다운 꽃들이 되고 있다. 가시들과 꽃들은 엄청나게 다르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시브 바바가 이 사람 안에 임해 있다. 그 역시 하나의 영혼이지만,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불순한 영혼들은 지금 소리쳐 그를 부른다: 오 지고의 영혼이여, 오소서! 와서 우리를 정화시켜주소서. 그는 지고의 아버지이며, 우리를 지고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분이다. 너희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되고 있다. “지고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주 듣기 좋다. 그들이 그를 편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다정함이 없다.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들은 너희들 중에서 극소수뿐이다. 육신의 남편들과 아내들은 육신으로 서로를 기억한다. 여기서 너희 영혼들은 지극한 사랑으로 지고의 영혼을 기억해야 한다. 신봉의 길에서는 그들이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를 숭배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이 없다. 그들이 그를 모르는데 어찌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은 이제 그를 극진히 사랑한다. 너희 영혼들은 “나의 바바”라고 한다. 모든 영혼은 형제들이다. 형제마다 제각기 말하기를, 바바가 우리에게 그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으면 너희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서 유산을 받기 때문이다. 유산이 더 클수록 그 자녀들이 가지는 사랑도 그만큼 더 클 것이다. 만일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클 텐데, 왜냐하면 그에게서 돈을 좀 받으리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다. 지금 이분은 무한한 아버지다. 아버지가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신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것은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다. 창조주인 그 아버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그를 모르는 탓에 제 스스로 아버지라고 칭한다. 만일 너희가 어떤 아이에게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결국 그 아이는 “나예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 분이 틀림없이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제 안다. 우리가 지금 찾은 무한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는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마음속에 대단한 행복을 느껴야 마땅하다. 사람들이 저런 순례를 갈 때는 행복이 별로 크지 않은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 성취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려고 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그들은 무척 많이 비틀대며 헤맨다. 절을 하느라 그들은 이마가 닳을 지경이고 돈도 전부 다 써 버린다. 돈을 많이 쓰면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만일 신봉의 길에서 소득을 벌었다면 바라트 사람들은 무척 부유해졌을 것이다. 그들은 사원들 등을 짓는 데 수십 억 루피를 쓴다. 너희들이 숨나트에게 바친 사원 하나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왕마다 각각 사원을 하나씩 가졌었다. 너희들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부가 주어졌었다. 5천 년 전에 너희는 세계의 주인들이 되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말을 한다. 5천 년 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쳤고, 너희가 그들처럼 되게 만들었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지각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고귀했었다! 84생을 다 취한 이제 우리는 바닥에 떨어졌고, 빈조개껍데기처럼 무가치해졌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세계의 주인들로 만들고 있는 바바에게 가고 있다. 이것은 영혼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순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랑을 내면에 가져야 합당하

다. 너희 자녀들이 여기에 올 때는 세계의 주권을 다시 한 번 받으려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가고 있다는 인식을 지각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자녀들아,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해라! 전능한 권위자, 정화자, 아버지인 나를 기억해라! 매 사이클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이르는데,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무한한 아버지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에 느껴져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은밀하다. 영혼이 말한다: 나는 은밀하다. 너희들이 시브 바바와 브라마 다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우리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데 분을 만날 것이다. 무한한 내면의 행복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여기 마두반에 오려고 너희 집을 떠날 때 너희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방울방울 끓어 올라야 한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아버지가 와서 우리에게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너희 집을 떠날 때, 마음속에 이 행복을 가져야 한다. 처녀가 미래의 남편을 만나려 할 때는 보석 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얼굴은 꽃처럼 핀다. 슬픔을 받는 것인데도 그녀의 얼굴이 핀다! 너희들은 한결같은 행복을 받는 것에 얼굴이 피어난다.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데는 엄청난 행복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이제 무한한 아버지를 찾았다. 황금시대에 가면 그때는 우리의 도수가 줄어든 것이다. 너희 브라민들은 지금 신의 자녀들이다. 신이 여기 앉아서 너희를 가르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며 또 우리의 선생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직접 우리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 영혼들은 지금 라반의 더러운 왕국에서 해방되고 있다. 너희들의 내면에 대단한 행복이 있어야 마땅하다. 아버지가 너희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고 있으니, 너희는 공부를 아주 잘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다. 자녀들은 “바바, 저는 슈리 나라얀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은 참된 나라얀이 되는 진실된 이야기다. 이것은 보통사람에서 나라얀으로 변하는 이야기다. 너희들은 여러 생 동안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너희는 지금 이때에 단 한 번만 아버지에게서 참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것이 신봉의 길에서 계속된다. 시브 바바는 밤에 태어났다고 일컬어지고, 그들은 해마다 그의 탄신일을 경축한다. 그러나 그가 언제 왔고 그가 와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앗차, 그들은 또 크리스나의 탄생일도 축하한다. 그가 언제 왔으며 어떻게 왔고 뭘 했는지,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그가 칸스의 나라에 왔다고 말한다. 그가 어떻게 불순한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무한한 아버지에게 가고 있다는 것에 너희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해해야 한다. 아무개가 어떻게 자기들에게 화살을 쏘았고 바바가 오셨다는 말을 해주었는지, 자기들의 경험을 전하는 자들이 일부 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오직 아버지만을 기억해왔다. 이 순례는 너희가 모든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다. 바바는 살아 있고, 그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온다. 저 순례들은 육신으로 하는 순례다. 여기서 아버지는 살아있다. 마치 우리 영혼들이 몸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도 몸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 이 공부는 미래 21생 동안 너희의 생계를 위한 공부다. 다른 공부들은 이번 생단 하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느냐? 바바가 이르는데, 양쪽을 다 해라! 너희는 산야시들처럼 집과 가족들을 떠나 숲에 들어가서 살지는 말아야 한다. 이 길은 가정의 길이다. 이 공부는 두 가지 다를 위한 것이다. 모든 이가 다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공부를 아주 잘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조금 덜 할 것이다. 일부는 화살이 즉시 꿰뚫을 테지만 나머지는 미친 듯이 계속 말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예,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저는 어딘가에서 홀로 앉아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서 사라진다. 지식의 화살이 누군가를 맞히면 그는 즉각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너희는 화살이 그들을 맞히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화살이 브라마 바바를 꿰뚫었을 때, 그가 어떻게 즉각 모든 것을 다 떠났는지 봐라! 그는 자기가 주권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하기를, “그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에게서 왕국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이제는 너희의 사업 등을 수행하되 일주일 동안 와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이해해라. 너희들은 가족을 돌보고 너희의 피조물을 부양해야 한다. 저 사람들(산야시들)은 가족을 만들고 나서 집을 떠나 도망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들은 피조물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아주 잘 돌봐라. 만일 너희의 아내와 아이들이 너희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들은 순종적이고 가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순종적이지 않으며 무가치하다. 누가 가치 있고 누가 무가치한지 너희들은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슈리마트를 따르면 너희들은 고귀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순수해지고 가치 있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빛내라. 일단 화살이 그들을 맞히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진정한 소득을 벌겠군요. 너희를 시발라야로 데려가려고 아버지가 왔다. 너희들은 시발라야에 갈 자격이 있게 되어야 한다. 이것에 노력이 든다.

그들에게 “이제는 시브 바바를 기억하세요”라고 일러줘라. 죽음이 바로 앞에 서 있다. 그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한다. 그들에게 말해라: 지금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딸인 너희들의 의무는 너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을 드높이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로 초대되었으니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너희 의무다. 자비로워져라. 불순하고 타모프라단한 인간들에게 사토프라단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어라. 모든 것이 반드시 새 것에서 낡아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지옥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불순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화되려고 갠지스 강에 몸을 씻으러 간다. 그러나 우선 첫째로, 그들이 불순하다는 것과 그래서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아버지가 영혼들에게 이르는데,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현인들과 성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해줘라.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해라! 이 요가의 불 또는 기억의 순례를 통해서 영혼에게서 불순물이 계속 제거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정화되어서 나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 모두를 직접 데리고 집에 돌아갈 것이다. 전갈은 뭔가 부드러운 것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 그 다음에는 그 부드러운 것을 찢는다. 돌을 찢어서 그것이 뭘 얻겠느냐? 너희들도 역시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다. 그의 신봉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이미 너희들에게 일러주었다. 그들은 시바의 사원, 크리슈나의 사원, 그리고 락쉬미와 나라얀의 사원에 있다. 신봉자들은 계속해서 나를 숭배한다. 그들도 역시 나의 자녀들이다. 그들도 역시 나에게서 왕국을 받았지만, 숭배받을 가치 있던 데서 이제는 숭배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또 신인들의 신봉자들이기도 하다. 으뜸가는 숭배는 시바에 대한 정결한 숭배다. 차츰 추락하는 동안에 그들은 물질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시바의 숭배자들에게 설명하기는 쉽다: 이분이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 시브 바바입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줍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 이제는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정화자, 지식의 대양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지식을 주고 있다. 나는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요가도 가르친다. 브라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나를 기억해라! 너희의 84생을 기억해라! 사원들과 쿨바 펠라에 가면 너희가 신봉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갠지스 강이 정화자인지 지고의 영혼이 정화자인지, 너희는 거기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너희 자녀들은 행복을 느껴야 한다. 그는 참으로 평범하다! 그가 무슨 화려함을 드러내야겠느냐? 시브 바바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뭘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는 샤프란 (노란색) 법의를 입을 수 없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평범한 몸을 취한다. 뭘 해야 할지 나에게 조언을 좀 해봐라! 내가 어떻게 이 수레를 치장해야겠느냐? 후세인의 말을 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준다. 여기서 그들은 시브 바바의 수레를 황소로 묘사한다. 그들은 또 황소의 이마에 시바의 둥근 형상을 붙인다. 시브 바바가 어떻게 황소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들은 어째서 사원에 황소를 보여왔느냐? 그들은 그것을 샹카르의 수레라 한다. 샹카르가 서틀 리전에서 수레를 가지겠느냐? 그 모든 것이 신봉의 길에 속하며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 실천 요지:

1. 너희 자신에게 약속해라. 1) 이제 나는 참된 소득을 벌겠다. 2) 나는 시발라야에 갈 자격을 갖추겠다. 3) 나는 가치 있는 자녀가 되어 슈리마트를 따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빛내겠다.
2. 자비로워져서 타모프라단한 인간들을 사토프라단하게 만들어라. 모든 이에게 유익을 줘라. 죽음이 오기 전에 모든 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줘라.

**축 복:** 자비로운 아버지의 자비로운 자녀인 너희들은 모든 이에게 그들의 목적지를 보여줘라. 자비로운 아버지의 자비로운 자녀들은 거지의 모습을 한 누구를 보든 자비를 느낄 것이고 그들이 목적지를 찾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과 접촉하게 되는 누구에게든 아버지를 반드시 소개할 것이다. 누군가가 찾아오면 너희는 우선 먼저 그들에게 물을 권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가게 된다면 좋지 않게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든 너희와 접촉하게 되는 이에게 반드시 아버지를 소개하는 물을 권해라, 즉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니 너희도 공여자가 되어 그들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림없이 주어라.

**슬로건:** 정확한 무관심의 태도에 관한 쉬운 의미는 너희가 초연한 것과 똑같은 정도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 음 산티 OM SHANTI \*\*\*